

28장(통28) / 복의 근원 강림할 때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빛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393장(통447) / 오 신실하신 주

1. 오신실 하신주 내아버지여 늘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사랑 변찮고 날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갈네
2.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겨울 해와달 별들도 다주의것
만물이 주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3. 내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후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설명절

가정에 배



 **한국기독교장로회 김포한신교회**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87-51

031-985-4941

가정예배 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4)

- ◆ 사도신경 다 같 이
- ◆ 찬 송28장(통28)/복의 근원 강림할 때..... 다 같 이
- ◆ 기 도 가족중에서
- ◆ 말씀봉독 출애굽기 2:2~6 말 은 이
2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4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려고 멀리 섰더니 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 ◆ 찬 송 393장(통447)/오 신실하신 주 다 같 이
- ◆ 자녀를 위한 덕담 부 모 님
- ◆ 주기도문 다 같 이

<승리를 향하는 가정>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계획하고 뜻 한대로 인생일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풍을 만나 잔잔히 항해하듯 평안할 때도 있지만, 역풍을 만나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어려움들 앞에서 좌절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련들을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가운데, 출산은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기

쁨을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였습니다. 당장 아이를 떠나 보내야하는 상화이었지만,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부모의 시선에서 아이가 예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보면, 이 아이는 역풍이 아닌 이스라엘의 순풍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올해를 살아 가며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볼 때 세상의 시선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바라 볼 때에도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들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죽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진을 친 갈대 상자에 넣고 강에 띄워 보내며, 누이는 끝까지 그 상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에 의해 발견 될 때, 아이의 친모를 유모로 소개하게 됩니다. 맡기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히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3년도 분명 각자의 삶 속에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지난 시간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 해야 할 일들, 극복 해야 할 일들, 승리 해야 할 일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승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했지만, 애굽의 공주에 의해 발견된 아이는 ‘건져 냄’이라는 뜻으로 모세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는 인물로 커 가게 됩니다. 우리도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에 의해 건져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빛의 자녀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 받았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며, 역풍을 만날지라도 승리하는 한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